

티베트계 인도스님들, 환경법회 열어

'티베트불교 뿌리' 타왕(Tawang) 보존하고자

인도와 중국 간의 영토 분쟁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州)의 타왕(Tawang) 지역이 이번엔 '땀 건설 찬반 여론'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인도 최대 사원인 타왕 사원의 스님들이 건설 현장에서 환경 법회를 봉행하는 등의 땀 건설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불교월간지 트라이시클(tricycle.com)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해 말 인도 굴지의 전력회사인 CESC(Calcutta Electric Supply Corporation)와 6100kwh 규모의 수력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약을 체결하고, 타왕 지역의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에서 댐 건설에 들어갔다.

문제는 인도와 티베트 간의 불교전래 전 조지였던 타왕 지역의 고대 불교유적이 댐의 완공과 함께 대부분 수몰 위기를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타왕 지역은 인도불교의 정점이자 티베트불교의 뿌리"라고 전제된 톱상 가췌(Lobsang Gyatso · 타왕사원) 스님은 "타



인도 최대 사원인 타왕 사원의 전경(왼쪽 사진). 이곳에 댐이 건설되며 하자 타왕 사원 스님들이 환경 법회를 봉행하는 등 반대여론을 주도했다. 공사 현장 촬영에 나선 스님이 곤봉에 맞은 모습이다.

왕사원의 스님들은 인도와 티베트의 고대 불교 성지와 세간의 발길을 피하며 제 자리를 지켜온 불교유적이 무모한 개발로 훼손되고 사라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왕 지역은 티베트에 불교를 전래한 티베트불교계의 성인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 스님의 오랜 주처처가 있고, 중국정부의 탄압의 표적이 되었던 6대 달라이 라마인 장양 가췌(Tsang Yang Gyatso)의 탄생지도 있다는 연유로, 매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순례하고 있다. 댐이 건설되면 이곳 모두 수몰될 전망이

다. 이는 스님들이 환경 법회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 국립수력공사 NHPC(National Hydro Power Corporation)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주경찰은 환경 법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가스를 살포하는 등 무력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NHPC는 취입과 복지 혜택을 약속하며 타왕 지역주민의 환경보호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환경 법회는 주정부의 강경진압으로도 결코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톱

상 가췌 스님은 "고대 티베트불교의 산신인 이곳 타왕의 지역주민 모두 독실한 불자"라고 강조했다.

5대 달라이 라마의 대규모 건축 불사와 적극적인 포교에 힘입어 불심을 키웠던 타왕 지역의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써놓은 깃발을 꽂고, 집에는 탕가를 걸러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정도로 돈독한 불심을 가졌다.

이곳의 중심은 타왕사원에는 300여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에는 1~3년을 기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동자승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타왕 주민들이 세 명의 아들을 낳으면, 막내는 무조건 사원으로 보내는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환경단체인 SMRF(Save Mon Region Federation)은 최근 자료를 통해 "공사 현장 촬영에 나선 스님이 곤봉에 맞아 실신했고, 법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연행됐다"며 타왕의 심각성을 알리며, 세간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주목하고 있는 타왕의 불교유적과 유네스코 지정 야생보호구역 마나스(Manas) 일대의 수몰 위기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곳을 '위험 지구'로 분류·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한국 불상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대영박물관 한국실서 신라 불상 화판에 옮겨



대영박물관 한국실 입구에 있는 통일신라 불상을 런던대 미술학도인 에이리양이 진지하게 스케치하고 있다.

“한국 불상은 다른 아시아 불상보다 조각성이 우수하고 아름다워 직접 그리며 느껴보고 싶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중 하나인 대영박물관 한국실에서 만난 에이리(런던대 미술학과 2년)는 구립 12월 24일 2시간째 한 자리에 서서 불상을 스케치북에 열심히 담고 있었다. 표정도 자못 진지하다. “처음에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쳐다보며 그리다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신비감이 들어요. 앞으로 대영박물관에서 좀 더 다양한 한국 불상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런던시 블룸즈버리에 위치한 대영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 및 민속학 수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3층 677실에 자리한 한국관은 2000년 11월 한·영 양국간의 교류 200주년을 기념해

396.72㎡ 규모로 신선했다. 한국관에는 불상과 탕화, 청자, 백자, 회화작품 등 통일신라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미술품 250여 점을 전시중이다. 이외에도 전통기와집에 사용된 청자, 청동, 도자기, 금속품 등 다양한 신영혼씨가 한국서 공수해 온 재료로 만든 것이다. 이 한국관은 한 독자의 기부에 의해 시발점이 됐다. 1995년 독립 전시관이 없던 한국의 유물 몇 점만 있는 대영박물관을 보고 충격 받은 한광호씨가 1997년 대영박물관에 100만 파운드(약 16억원)를 기부했다. 대영박물관 큐레이터 다니엘씨는 “예전보다 한국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전시품이 없어 잠깐 머물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신라시대 불상에는 항상 사람들이 머물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영박물관=김주필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4>



개종선언 이후의 반응과 새 종교의 모색

힌두교를 버리고 새 종교로 개종을 하겠다는 암베드카르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한 불가족 친민 단체는 암베드카르의 개종결심을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암베드카르와 같은 카스트에 속하는 한 불가족친민 운동가도 그의 의도가 수상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하트마 간디는 매우 격렬하게 개종에 반대했다. 암베드카르와 간디는 개종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불가족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암베드카르는 불가족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당한 권리를 얻고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간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종교적 박해로부터의 보호라고 주장했다. 이런 간디의 온정주의적 태도에 실망한 암베드카르는 첫 만남에서 “선생님, 저는 조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 고양어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나의 조국이라고 부르고 그런 나라의 종교를 나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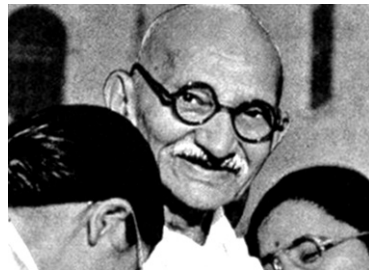
간디는 불가족친민들이 힌두교를 떠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다. 암베드카르가 주장한 불가

족친민만의 분리선거구를 반대했던 것도 그렇게 되면 불가족친민들이 힌두교에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다가 암베드카르의 개종선언까지 나오자 간디와 암베드카르 사이의 불화는 더욱 심해졌다.

암베드카르의 개종선언이 있는지 이틀 후 간디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에서 간디는 “종교는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집이나 옷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보다는 정신의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다. 세상물정도 모르고 무지한 수많은 불가족친민들은 좋은 나쁘든 자신들의 삶이 상위 힌두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암베드카르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간디는 다른 자리에서 “불쌍한 불가족친민들은 이성도 지성도 없으며 신과 신이 아닌 것의 차이점조차 모른다. 한 개인이 모든 불가족친민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들이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질 수 있는 벽돌인가?”라며 암베드카르의 집단개종을 비난했다.

개종에 대한 이런 간디의 비난은 카스트 제도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었다. 간디는 불가족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인도의 힌두교 어떻게 믿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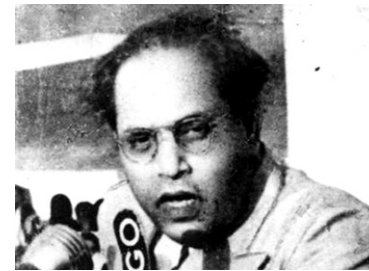


마하트마 간디

“불가족친민 이성·지성도 없어”

전민제도를 ‘인류에 대한 범죄’ 또는 힌두교가 속죄해야 할 ‘죄’로 표현하기를 했지만 결국 카스트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했기에 인도 사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간디는 카스트 제도에 따른 계급분류는 유지하되 그 안의 계급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가족친민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냉대를 뭉소 겪은 암베드카르에게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힌두교와 힌두교가 만들어낸 카스트

VS



암베드카르

“카스트제도 자체가 문제의 근원”

제도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며 그 안에서는 불가족친민들의 해방을 위한 어떤 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종을 결심했다. 간디를 비롯한 상위 카스트 힌두들이 암베드카르의 개종계획에 반대하는 동안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암베드카르에게 접근해왔다. 그 의도는 당연히 암베드카르와 그의 지지자들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슬림 지도자 고바는 그에게 전보를 보내 그와 불가족친민들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암베드카르는 이슬람교에 그리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인도의 이슬람교에 힌두교와 유사한 형태의 카스트 제도와 불가족친민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이슬람교에서 행해지던 여성차별은 힌두교의 사회와 맞지않다고 생각했다.

암베드카르는 기독교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특히 남인도에서 일부 불가족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불가족친민들을 따로 앉히는 등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암베드카르는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인도 내에서 발생한 종교 중 하나인 시크교에 큰 관심을 가졌다. 시크교 측에서도 큰 환영을 표하며 불가족친민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약속했다. 그는 조카와 아들들을 시크교 사원으로 보내 시크교를 연구하도록 하고 시크교로 개종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모색했다. 그러나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였던 시크교로의 개종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개종절차와 새로 생길 조직의 통제권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다. 강 주 : 석봉운 스님, 율봉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영남총무원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종중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목	기간	교과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불교입문, 부처님상에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영합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선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영합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촌 성명사 : 02.336.2052 봉천동 명림사 : 02.889.7272 구로 명림사 : 02.854.0196 망우동 삼명사 : 02.496.3803 성남 화상사 : 031.745.1482 일산 화상사 : 031.905.2912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안산 월광사 : 031.419.5048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군포 성명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 金剛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사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